『해 보긴 해봤어?』

최선을 다한 그 순간이 답이었다

✨프롤로그 – “해보긴… 해봤냐?”

한 번쯤은 묻고 싶더라.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말고,

진짜 해봤냐고.

대충 시늉만 한 거 말고,

누가 안 봐도 끝까지 가보는 거.

그런 거.

요즘 애들이 노력 안 한다는 말,

나는 안 믿는다.

안 해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겠지.

근데 말이다—

그렇게 몰랐던 거,

진짜 해보다가 알게 되는 것도 있다.

알고 나서 시작하는 거 말고,

시작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

그걸 내가 겪어봐서 아는 거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온다.

“해도 안 될 것 같아” 싶은 날.

근데 해보면

되는 건 둘째치고,

일단 내가 바뀌더라.

네가 지금 뭐 때문에 멈춰 있는지,

내가 다는 모르지만

이 말은 해주고 싶더라.

해보긴… 해봤냐?

예시 톤 (프롤로그 시안)

얘야, 아빠가 너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다.

“해 보긴 해봤어?”

말로만 그럴싸하게 꾸민 게 아니라,

진짜로 끝까지 부딪혀 본 적 있니?

차갑다고 발만 담그다 나온 건 해본 게 아니야.

몇 번 흉내만 내고 “난 안 맞아”라며 돌아선 것도 해본 게 아니야.

아빠는 안다.

해봤을 때만 남는 흔적이 있다는 걸.

몸에, 마음에, 눈빛에 그대로 남는 흔적 말이다.

얘야, 아빠가 네 곁에서 다그치려는 게 아니다.

그냥 이 한마디만은 네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다.

“해 보긴… 해봤어?”

�� 1장. 그건 해본 게 아니야

진짜로 해보는 건 말이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야.

못 할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해보는 거야.

그래야 그게 ‘해본 거’다.

대충 하다 말고

“아, 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그건 해본 게 아니다.

그건 살짝 만져보고

“이건 내 길이 아니야” 하고 돌아서는 거지.

물에도 깊이가 있잖아.

발만 담갔다가

차갑다고 안 들어가면,

그건 그냥

물가에 서 있던 거다.

진짜 해보는 건

허리까지 들어가는 거야.

차가워도.

덜덜 떨려도.

안 맞는 줄 알았던 일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나를 새로 만날 때가 있더라.

그래서 난 요즘 누가

“해봤다”고 말하면

한 번 더 묻고 싶더라.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게 그냥

겉만 핥고 나온 거라면

내가 보기엔

해본 게 아니야.

�� 1부. 말만 하지 말고

1장. 겉핥기는 해본 게 아니야

얘야, 아빠가 하나 물어볼게.

“그거, 진짜 해본 거 맞아?”

발끝만 살짝 담갔다가 “차갑네” 하고 나온 건 해본 게 아니야.

책 몇 장만 넘겨보고 “별로네” 하며 덮은 것도 해본 게 아니야.

조금 하다 말고 “난 안 맞아”라며 돌아선 것도 해본 게 아니지.

해본 거라는 건,

차갑고 무섭더라도 허리까지 들어가 보는 거야.

덜덜 떨리면서도, 숨이 막히면서도,

끝까지 해보는 거.

그때야 비로소 알게 돼.

그 일이 너랑 맞는지 아닌지,

네 안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그래서 아빠는 네가 “해봤어”라고 말하면 다시 묻고 싶다.

“얼마나 들어갔는데?”

얕게 스치고 나온 건 흔적이 안 남아.

하지만 깊이 들어간 건,

네 몸과 마음에 확실히 새겨져.

그게 진짜 해본 거다.

2장. 노력했다는 말, 정말일까?

얘야, 너도 가끔 그러지?

“아빠, 나도 노력했어.”

근데 아빠가 듣기엔 그 말이 늘 궁금하다.

정말로 네가 가진 걸 다 쏟아부은 노력인지,

아니면 그냥 조금 하다가 “노력했다”라고 포장한 건지.

진짜 노력은 티가 난다.

밤늦게까지 버틴 눈빛,

손끝이 닳도록 붙잡은 흔적,

더는 안 되겠다 싶은데도 한 번 더 내딛은 발자국.

그런 게 몸에, 표정에 남는다.

근데 겉만 살짝 스쳐놓고

“나 노력했잖아” 하는 건,

사실 노력한 게 아니야.

그건 자기 위로일 뿐이지.

얘야, 아빠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아빠도 그랬거든.

조금 해놓고 스스로 위로한 적 많았다.

근데 돌아보면, 그건 다 핑계였더라.

그러니까 네가 “노력했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스스로 한 번 물어봐.

“정말? 끝까지 해본 거 맞아?”

그 질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노력이다.

3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얘야, 아빠도 기도 많이 해봤다.

간절히 빌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내일은 달라지길 바란 적이 많았지.

근데 알아?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라.

기도는 방향을 가리켜 주는 나침반이야.

근데 나침반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풍경은 바뀌지 않아.

길은 네 발로 걸어야 열리는 거야.

아빠가 네 나이였을 때,

기도만 하다가 놓친 게 많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내 발은 움직이지 않았거든.

결국 그건, 하늘에 메아리만 보낸 셈이었지.

얘야, 기도는 필요하다.

근데 그 기도가 살아나려면

네가 한 발이라도 내딛어야 해.

작고 떨리는 발걸음이라도 괜찮아.

그게 기도를 현실로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기도는 하늘을 향하지만,

발은 땅을 딛는다.

그 두 개가 만나는 순간,

기도는 진짜 힘이 된다.

4장. 맡긴 척, 사실은 숨은 거다

얘야, 아빠도 가끔 이렇게 말했어.

“난 맡겼어.”

근데 솔직히 그 말 속에는

진짜 맡김이 아니라 숨음이 들어 있었지.

맡겼다는 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이야.

내가 다 할 수 없으니 더 큰 손에 의지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든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그건 무겁고도 용기 있는 태도야.

근데 숨는 건 달라.

겉으로는 “맡겼다”고 말하지만,

속으론 “나는 빠졌다”라고 외치는 거야.

책임의 무게를 피하려고,

안전한 곳에 숨어버리는 거지.

아빠도 그걸 많이 해봤다.

결과가 안 좋으면 남 탓을 하고,

“난 이미 맡겼으니까”라며 빠져나가려 했어.

근데 그건 위탁이 아니라 위장이었더라.

얘야, 네가 지금 뭔가 맡기고 싶을 때,

한 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나는 정말 맡기는 건가? 아니면 숨어버리는 건가?”

숨음은 가볍지만,

남는 건 변명뿐이야.

맡김은 무겁지만,

남는 건 책임과 용기다.

해본 사람은 숨지 않는다.

끝까지 보고, 끝까지 감당한다.

그게 진짜 맡김이고, 그게 진짜 해본 거다.

5장. 망가질까 봐 멈추면, 넌 변하지 않아

얘야, 누구나 두려움은 있어.

“망가지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지.

근데 아빠가 살아 보니까 알겠더라.

망가지지 않으려고만 하면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걸.

겉으론 안전해 보여도,

안에선 그대로 멈춰 있는 거야.

실제로 아빠도 많이 망가져 봤다.

계획이 틀어지고, 손해를 보고,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었지.

근데 그때마다 알았다.

망가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망가져야만 깨닫는 게 있다.

무너져야만 다시 세울 수 있는 게 있다.

흔들려야만 더 단단해지는 게 있다.

얘야, 망가질까 봐 멈추면

넌 결국 제자리에 서 있는 거다.

진짜 망가짐은 시도하다 부서지는 게 아니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 겁이 나더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여라.

그게 너를 바꾸고,

그게 네 삶을 앞으로 끌고 간다.

6장. 해야 할 줄 알면서 피했니?

얘야, 어떤 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할 때가 있다.

“이건 꼭 해야 해”라는 걸 마음속 깊이 알면서도,

괜히 미루고, 외면하고, 딴짓을 하게 되지.

아빠도 그랬다.

시험 공부해야 하는 줄 알면서

괜히 책상만 정리하거나,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던 적이 많았다.

머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몸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던 거지.

알면서도 피하는 건 더 아프다.

몰라서 못한 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알고도 안 한 건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다.

밤에 누워 있으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너 알고도 안 했지?”

얘야, 그 목소리는 오래 간다.

그리고 네 등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겁게 짓누른다.

그러니 해야 할 줄 알면서 피하지 마라.

작게라도 시작해라.

한 줄을 쓰든, 한 문제를 풀든,

그게 네 삶을 살리는 첫걸음이 된다.

해야 할 걸 알고도 피하는 건,

실패한 열 번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러니 두렵더라도, 귀찮더라도,

피하지 말고 손을 대라.

그게 너를 구하는 길이다.

7장. 누가 안 봐도, 네가 먼저 해봐야 한다

얘야,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누가 본다고 이걸 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야?”

아빠도 그랬다.

사람들 시선이 없으면 손에서 힘이 빠졌다.

누군가 인정해 줘야 의미 있다고 착각했다.

근데 살아 보니 아니더라.

남이 보든 말든,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내가 내 삶을 살았다면

그 순간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얘야, 누가 안 봐도 먼저 해봐라.

그때야 네가 진짜 네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가 크지 않아도 괜찮다.

네 몸과 마음이 움직인 흔적,

그게 남아서 너를 바꾼다.

아빠는 늦게 알았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순간보다,

스스로 “그래도 해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훨씬 값지다는 걸.

그러니 얘야, 기다리지 마라.

박수도, 시선도, 인정도 필요 없다.

네가 먼저 해봐야 한다.

그게 네 삶을 네 걸로 만드는 길이다.

8장. 해봤더니 길이 열리더라

얘야, 아빠도 시작하기 전엔 늘 그랬다.

“이거 해봤자 될까?”

“괜히 시간만 버리는 거 아냐?”

머릿속에서 수십 번 계산하고,

안 될 이유만 잔뜩 늘어놓았다.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더라.

큰 길이 아니라도 괜찮았다.

작은 틈, 좁은 오솔길,

그 길이 내 앞에 조금씩 열렸다.

결과는 대단하지 않았다.

세상이 놀랄 만큼 거창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다.

발이 앞으로 나아갔고,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얘야, 해보지 않으면 길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앞엔 벽밖에 안 보인다.

근데 움직이면,

그 벽 사이에 틈이 난다.

그 틈이 바로 길이다.

그래서 아빠는 너한테 말하고 싶다.

“해봤더니, 뭐라도 시작되더라.”

그게 전부야.

그 작은 시작이

네 인생을 앞으로 밀어 줄 거다.

9장. 핑계의 옷을 벗어야 네가 드러난다

얘야, 처음엔 누구나 변명부터 입에 올린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

“상황이 안 맞아서 그랬어.”

“다른 애들은 더 잘하잖아.”

이런 말들은 겉옷처럼 우리를 감싼다.

겉옷을 걸친 채 있으면 따뜻해 보이고,

잠시나마 편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옷은 네 진짜 모습을 가린다.

겉옷 속에 숨은 네 마음은

조금도 자라지 못한다.

아빠도 그랬다.

변명의 옷을 두껍게 껴입고,

“내 탓이 아니야”라며 버텼던 적이 많았다.

근데 결국 알았다.

그 옷을 벗지 않으면

아무도 진짜 나를 볼 수 없고,

나조차 내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는 걸.

얘야, 이제는 벗어야 한다.

핑계라는 옷, 변명이라는 가리개를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

벗고 나면 남는 건 벌거벗은 너 자신뿐일 거다.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너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진짜로 서 있는 거다.

네가 네 핑계를 벗어 던지는 순간,

너는 비로소 드러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너는 해본 사람이 된다.

✨ 에필로그. 얘야, 네 눈빛만 봐도 안다

얘야, 아빠가 긴 이야기를 했지.

다른 말들은 다 잊어도 좋다.

하지만 이 한마디만은 네 마음에 남았으면 한다.

“해 보긴… 해봤어?”

이 질문은 남이 널 평가하려는 게 아니다.

네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

그 대답은 성적표에도, 상장에도, 남의 박수에도 없다.

네 눈빛 속에만 있다.

해본 사람은 티가 난다.

몸에 남은 흔적, 마음에 새겨진 흔들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빛에서 드러난다.

말 안 해도 알 수 있다.

“얘는 해봤구나.”

“얘는 아직 안 해봤구나.”

아빠는 네가 늘 해본 쪽이었으면 좋겠다.

잘했든 못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가 끝까지 부딪혀 본 흔적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얘야, 기억해라.

사람들은 다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못 한다.

네 눈빛 하나면,

아빠는 안다.

“내 아이, 진짜 해봤구나.”

